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이란-오만 호르무즈 개방 관련 논의 등으로 낙폭 축소 마감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일(목) 미 증시는 2~3주 이내 이란에 대한 집중 공격을 단행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국민 연설에서의 발언 이후 종전 기대감 축소 속 하락 출발했으나, 이후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관련 프로토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발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전환 (다우 -0.13%, S&P500 +0.11%, 나스닥 +0.18%)

전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2~3주 이내 이란 집중 공격 단행 예정, 호르무즈 해협 봉쇄 건은 각국이 감당해야 할 몫" 등 이란에 대한 강경 스탠스를 재차 강조. 최근 이란과의 종전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했던 아시아 증시는 기대감 되돌리며 투매 현상 되풀이. 특히, 코스피 지수는 종전 기대감 부각되었던 1일에 8.4% 급등했던 여파로 트럼프 연설 직후 위험회피 심리 재차 확대되며 -4.4% 급락세 연출.

미 증시도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하며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는 흐름 연출. 그 이유 중 하나는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 물론, 2~3주 이내 '이란 철수' → '집중 공격'으로 포커싱이 전환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긴 하였음. 다만, 결국 금번 발언 역시 이란에 대한 강경 스탠스 표출 → 미국의 협상력 우위 선점 전략의 일환이라고 판단. 특히, 금일(3일) 미 증시가 휴장임에 따라 미국 측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도 일부 발언에 작용했다고 판단.

그 외에 이란과 오만이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관리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이날 미 증시 낙폭 축소의 배경 중 하나. 이란 외무부 차관은 "해당 프로토콜은 통항을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안전한 통과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현재 프로토콜 초안은 최종 단계에 있다"고 언급. 즉, 호르무즈 해협이 일부 개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되었다는 점에 시장 참여자들은 주목한 것으로 판단.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주 주말을 포함한 남은 기간 추가적인 전쟁 뉴스플로우를 확인해볼 필요있으며, 특히 WTI 기준 110달러 선을 상회한 국제유가 레벨대가 재차 하향 안정화될지 여부가 차주 주식시장 방향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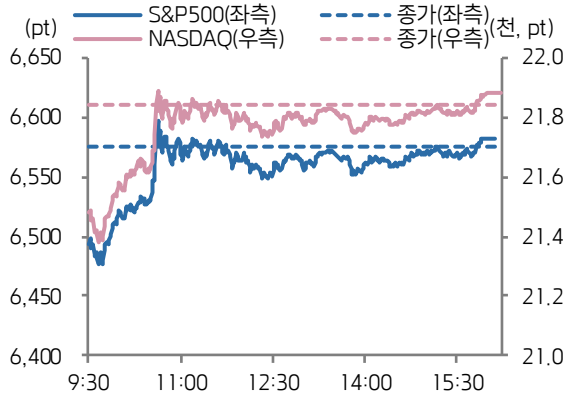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종전 기대감 이어지며 상승 출발했으나, 오전 10시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집중 공격 예고로 위험회피 심리 재차 부각된 결과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동반 매도세 출회된 영향으로 양 지수는 재차 급락세로 마감 (코스피 -4.47%, 코스닥 -5.36%).

금일 국내 증시는 이란-오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관련 협약 추진 소식 속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다만, 전쟁 불확실성 재촉발 속 WTI 기준 110달러선을 상회한 고유가 부담, 원달러 환율 1,510원선 상회 등이 상방을 제한하며 장중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전일 트럼프 발언 이후 재차 전쟁 민감도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이지만, 전일 급락으로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재차 7.6배로 과거 역사적 경험에서의 바닥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7.6배, '18년 10월 미중 무역분쟁 7.7배 등). 차주 삼성전자 잠정실적을 앞두고 이익 컨센서스 상향 조정은 지속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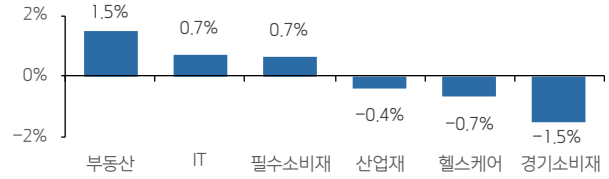
다는 점을 감안시, 현 구간부터는 저가 매수 대응이 유효한 구간이라고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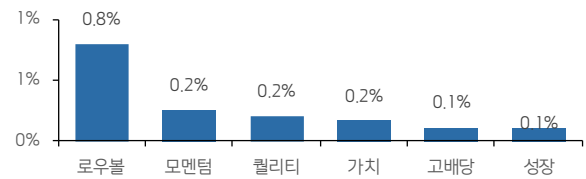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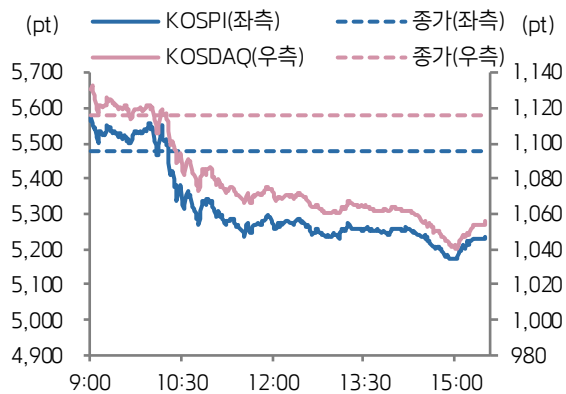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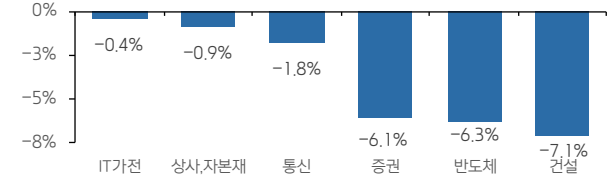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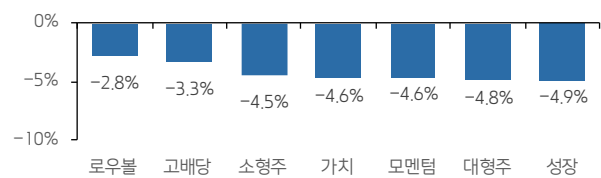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55.92	+0.11%	-5.78%	GM	72.54	-3.33%	-10.59%
마이크로소프트	373.46	+1.11%	-22.6%	일라이릴리	935.58	-1.98%	-12.8%
알파벳	295.77	-0.54%	-5.44%	월마트	125.79	+0.84%	+13.14%
메타	574.46	-0.82%	-12.9%	JP모건	294.60	-0.26%	-8.16%
아마존	209.77	-0.38%	-9.12%	엑손모빌	160.69	-0.06%	+34.42%
테슬라	360.59	-5.42%	-19.82%	세브론	198.97	+0.79%	+31.83%
엔비디아	177.39	+0.93%	-4.88%	제너럴일렉트릭	125.79	+0.8%	+13.1%
브로드컴	314.55	+0.34%	-8.93%	캐터필러	717.22	-1.79%	+25.49%
AMD	217.50	+3.47%	+1.56%	보잉	208.22	+0.43%	-4.1%
마이크론	366.24	-0.44%	+28.37%	넥스트에라	93.15	+0.3%	+16.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5,234.05	-4.47%	+24.2%	USD/KRW	1,510.60	-0.18%	+4.94%
코스피200	774.63	-4.82%	+27.83%	달러 지수	100.01	+0.36%	+1.71%
코스닥	1,056.34	-5.36%	+14.14%	EUR/USD	1.15	-0.43%	-1.76%
코스닥150	1,813.42	-6.18%	+17.2%	USD/CNH	6.89	+0.18%	-1.23%
S&P500	6,582.69	+0.11%	-3.84%	USD/JPY	159.60	+0.49%	+1.84%
NASDAQ	21,879.18	+0.18%	-5.86%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6,504.67	-0.13%	-3.24%	국고채 3년	3.475	+10.5bp	+52.4bp
VIX	23.87	-2.73%	+59.67%	국고채 10년	3.795	+10.5bp	+41bp
러셀2000	2,530.04	+0.7%	+1.94%	미국 국채 2년	3.796	-0.5bp	+32.3bp
필라. 반도체	7,833.39	+0.4%	+10.59%	미국 국채 10년	4.305	-1.4bp	+13.8bp
다우 운송	19,088.51	+0.84%	+9.97%	미국 국채 30년	4.880	-1.8bp	+3.6bp
상해종합	3,919.29	-0.74%	-1.25%	독일 국채 10년	2.992	+0.6bp	+13.7bp
항생 H	8,456.92	-0.56%	-5.12%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3,319.55	+0.25%	-13.96%	WTI	111.54	+11.41%	+95.68%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109.03	+7.78%	+79.18%
Eurostoxx50	5,692.86	-0.7%	-1.7%	금	4,679.70	-2.77%	+6.19%
MSCI 전세계 지수	993.18	-0.35%	-2.11%	은	72.92	-4.15%	+3.29%
MSCI DM 지수	4,313.61	-0.19%	-2.64%	구리	558.35	-1.12%	-1.73%
MSCI EM 지수	1,434.48	-1.59%	+2.14%	BDI	2,030.00	+1.75%	+8.15%
MSCI 한국 ETF	122.87	-2.65%	+26.38%	옥수수	452.25	-0.44%	+0.89%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98.25	+0.13%	+15.38%
비트코인	66,937.84	-1.81%	-23.63%	대두	1,163.50	-0.43%	+9.66%
이더리움	2,068.10	-3.51%	-30.55%	커피	295.40	-0.81%	-11.3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